고난 속에 빛난 민주화의 길…DJ 정신을 되새기다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오는 14~15일 오후 7시 30분 연극 '사형수 김대중'이 펼쳐진다. 배우들이 연극의 한 장면을 선보이는 모습. 〈푸른연극마을 제공〉

문화로 만나는 '오월'

〈2〉 연극 '사형수 김대중'

푸른연극마을, 14~15일 빛고을 시민문화관

12·3 비상계엄 맞물려 인동초 김대중 삶 주목

"나의 일생은 참으로 가시밭길의 그것이었지만 그러나 일생의 고난과 괴로움을 다 합쳐도 지난 1년의 그것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1년 5월 17일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적었다. 1980년 5월의 광주에서 벌어진 참혹한 비극을 떠올리며 참담한 심정을 털어놓은 것이다.

민주주의와 조국통일을 위해 평생을 바친 그는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끝까지 꺾이지 않았다. '인동초'라 불린 김대중의 삶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견뎌낸 의지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오늘날,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지나온 우리 사회에서 그 정신은 더 각별한 울림으로 다가온다. 시대를 건너 여전히 유효한 민주주의와 자유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바친 김 전 대통령의 삶과 고뇌를 그린 연극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 무대에 오른다.

푸른연극마을은 오는 14~15일 오후 7시 30분 2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 구동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연극 '사형수 김대중'을 선보인다. 이 작품은 지난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작품으로,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대중의 굴곡의 삶을 다룬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 전두환 신군부는 김대중을 긴급 체포해 군사재판에 넘겼다. 이후 그는 계엄령 하에서 군사재판에 회부됐고, 끝내 사형 선고를 받았다.

1980년 5월, 광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김대중 석방!", "계엄 철폐!", "군사독재 타도!", "민주주의 쟁취!"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이 거세게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외침은 계엄군의 총칼 아래 처참히 짓밟혔다.

작품은 1980년 5월 17일부터 1982년 12월 23일, 미국 망명에 이르기까지 김대중의 삶과 역사적 고뇌를 무대 위에 되살린다. 단순한 전기적 재현을 넘어, 한 사람의 개인이 거대한 역사적 흐름과 얽히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남겼는지를 묻는다.

특히 군사법정에서의 최후 진술 장면은 한 시대의 절규이자, 오늘날까지 반복되는 비극적 역사를 성찰하게 만드는 강렬한 순간으로 그려진다.

연출과 김대중 역을 담당한 오성완 배우는 "김대중 하면 전직 대통령, 민주투사,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다양한 이름으로 기억되지만, 이번 작품은 그중에서도 '인간 김대중'에 주목했다"며 "죽음을 앞둔 가장 두려운 순간,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김대중이 어떤 고뇌와 선택을 했는지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는 지난해 김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념을 기념해 제작된 이 작품을 최근의 무대에 올리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12·3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선거국면까지 이어지면서 제작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마음을 모아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로 했다. '지금, 여기'의 광주에 이 공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대표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 않나. 만약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또다시 국민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날, 안양에서 열린 공연 현장에서는 고무된 관객들이 만세를 외치며 공연 전부터 뜨거운 호응을 보냈다. 무대에 오른 배우들 역시 대사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진심을 전했다.

작품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방에 갇힌 김 전 대통령은 "하느님은 전지전능하고 선한데, 왜 이 땅에 악이 존재를 하는가요. 왜 박정희, 전두환 같은 못된 이들은 득세하고, 선하게 살려는 평범한 서민들은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고 울부짖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죽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정치 보복이 없어야 한다"는 유언을 남긴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인간 김대중의 모습은, 우리에게 묵직한 여운과 질문을 던진다.

전석 2만원, 인터파크·씨어터연바람 네이버블로그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시민인문학 커뮤니티 강좌

전남대 정문 카페 노블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강좌가 5월에도 진행된다. 제126기 강좌(화요일 제외)가 전남대 정문 앞 카페 노블에서 오후 2시부터 펼쳐진다.

먼저 월요일(12일, 26일) '몸·언어·철학' 시간에는 서명원 교수가 '체험주의:신체화된 마음'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수요일(21일)에는 신우진 책임연구원이 '정치를 말하지 못하는 사회: 침묵이 더 위험하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목요일(8일, 21일) '맑스 세미나' 시간에는 위상복 교수가 '블라디미르 레닌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강의한다.

금요일(9일, 23일)에는 신광용 이사장이 '하루키 월드'를 진행한다. 신작 에세이 '오래되고 멋진 클래식레코드2'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일요일 '인문택시'(당일치기) 시간에는 진정한 이사 등이 장흥으로 '호남문인들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떠난다.

한편 명혜영인문교실(오후 7시 화요일, 목요일 제외)도 펼쳐진다. '슬로우리딩 NEW: 마쓰나가 K 산조 소설 '베리에이션 루트'', '독립영화 읽기', '여행인문학', '들뢰즈철학 철학', '미술독서모임', '에세이 창작반' 등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참가비는 4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헨드릭 릴랑가 작 'Acrylic enamel on canvas'

특별한 미술 이벤트

이브의정원 '시크릿 아트옥션'

이브의정원이 5월 한 달간 특별한 미술 이벤트 '시크릿 아트옥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이브의정원이 지향하는 치유와 정화의 철학에 문화예술의 감성을 더해 펼쳐지는 프로그램이다.

광산구 수완동에 자리한 여성을 위한 프라이빗 웰니스 공간인 이브의정원은 독일의 성녀 힐데가르트가 언급한 'Viriditas', 즉 '생명력의 아름다움'에서 비롯됐다.

이번 아트옥션에서는 봄의 기쁨을 담은 제주 작가 고은경의 '행복한 풍경'을 비롯해 광주문화회관에서도 소개된 바 있는 탄자니아 출신 아프리카 현대미술 작가 헨드릭 릴랑가, 유쾌한 마법사 시리즈로 독창적인 감성을 선사하는 임택준 작가의 작품이 출품된다. 그리고 치유의 본능을 감각적인 색채로 풀어낸 '원더랜드' 정혜진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경매는 '시크릿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는 작품의 시작가를 확인한 후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기재해 참여하는 방식이다.

예술 경매가 처음인 이들도 호기심과 즐거움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펼쳐지며 여성들의 내면에 깃든 감수성과 생명력을 예술로 일깨우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지역 예술가들과의 협업, 로컬 브랜드로 구성한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브의정원' 이승미 대표는 "이번 시크릿 아트옥션은 단순한 미술품 판매 행사를 넘어, 예술을 사랑하는 여성들이 아름다운 작품과 깊이 연결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유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웰니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5일 첫 공연을 선보일 '펠리체 앙상블'. 〈광주문화재단 제공〉

목요일 밤 '시 문학파, 노래가 되다'

광주문화재단 '목요콘서트', 15일 '펠리체 앙상블' 첫 공연

광주의 목요일 밤을 한층 따뜻하게 채워줄 음악회가 찾아온다. 광주문화재단이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남구 구동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2025년 첫 '목요콘서트'를 선보인다. 이번 시즌은 창작가곡·재즈·고전클래식과 뮤지컬 등 다채로운 장르를 아우르는 무대로 꾸며진다.

첫 무대는 15일, 창작가곡 공연 '시 문학파, 노래가 되다'로 시작된다. '펠리체 앙상블'이 호남 대표 시인 박용철·이수복·김윤식·김현구 등의 시를 가곡으로 재해석해 무대에 올린다. 단체 이름처럼 '행복(Felice)'을 전하고자 하는 이번 무대에는 소프라노 김명선·조안나, 메조소프라노 김유정, 테너 박영권, 바리톤 황진원, 피아니스트 이승규가 함께한다.

22일 두번째 무대는 감각적인 재즈 사운드를 선보이는 '랑데부'의 'Rendezvous with Jazz-시간 속의 음악 여행'. 보컬 강은영을 비롯해 드럼 황의석, 색소폰 최의묵, 베이스 임방울, 피아노 김태형, 해설 허영일이 함께하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재즈의 매력을 전한다.

29일 마지막 공연은 '러브어스앙상블'의 '소통과 감동이 있는 클래식 음악 산책'이다. 고전 클래식은 물론 영화 OST, 민요, 전자음악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스토리텔링 형식의 음악회가 관객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전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는 플루트 백현정, 바이올린 김관후, 첼로 이소연, 피아노 최은녕·설효선·정경희, 소프라노 김영실, 바리톤 김용원, 해설 이지향이 참여해 풍성한 무대를 완성한다.

노희용 재단 대표는 "올해 목요콘서트는 클래식,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에도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료 5000원, 수익금 전액 공연팀 전달.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다양한 조각보가 전시된 장면. 〈비움박물관 제공〉

'평화의 조각보' 모아서 이어보자

8~31일 비움박물관

우리의 옛 조각보는 알록달록한 색상의 천들을 이어 만든 생활용품이다. 실용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예술적 미가 깃들어 있다.

무엇보다 조각보에 담긴 의미는 깊고 넓다. 많은 천을 잇대 만든 것은 하나하나의 천 조각을 귀히 여긴다는 마음을 품고 있다. 또한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시국에 마음을 다친 이들에게는 위로와 위안의 의미도 배어 있다.

조각보를 모티브로 한 전시가 열린다.

비움박물관(관장 이영화)은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평화의 조각보 모아보자 모아보자 모아서 이어보자'를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

특히 5·18 45주년과 맞물려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조각보에 투영된 가치 등을 다각도로 사유해볼 수 있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조각보는 보자기를 비롯해 밥상보, 이불보, 가리개 등 다양하다. 손바느질 작품들에서는 우리 어머니들이 한 땀 한 땀 정성들여 기운 따뜻한 마음과 정성 등이 읽혀진다.

모든 조각보는 결국 조화와 화합으로 수렴된다. 자신만 옳다고 큰소리치는 것이 아닌 배려와 양보, 그리고 어울림의 미덕을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전시 기간에는 '조각보 손가방 만들기' 체험활동도 예정돼 있다. 동산초 3학년의 전통문화체험학습(9일), 주먹밥 무료나눔(15일),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동학농민운동 세미나(16일)이 펼쳐진다.

한편 이영화 관장은 "이번 전시는 5·18 45주년과 맞물려 진행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체험활동도 운영된다"며 "다양한 조각보에 담긴 정신과 가치 등을 떠올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